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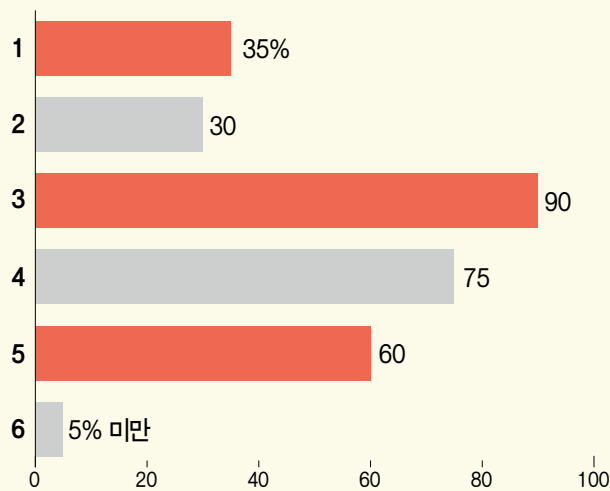
확률로 본 2019년 지구촌 이슈 “트럼프 탄핵당할 확률 35%”

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2019년 주요 사안의 발생 가능성을 확률로 계산한 결과,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당할 확률은 35%로 추산됐다. 또 애플이 세계 최고 가치를 자랑하는 기업으로 남아있을 확률은 75%,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(CEO)가 테슬라 CEO 자리에서 내려올 확률이 85%로 나타났다.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예정대로 3월 29일에 이뤄질 확률은 60%로 전망됐고, 외계생명체가 발견될 확률이나 마라톤의 '서브2'(2시간 이내에 레이스를 마치는 것) 확률은 5% 미만으로 추산됐다.

김토일 기자

확률로 본 2019년 지구촌 이슈

작년 말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 특별호에서 영국 베티싱사이트 베티페어(Betfair)·프리딕트잇(Predictit)·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(RUSI) 등의 자료를 참고해 2019년 주요 사안의 발생 가능성을 확률로 계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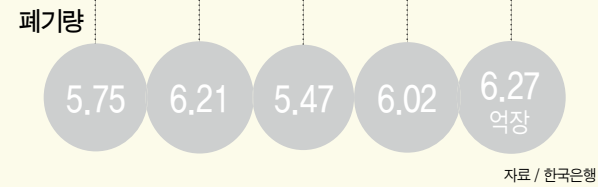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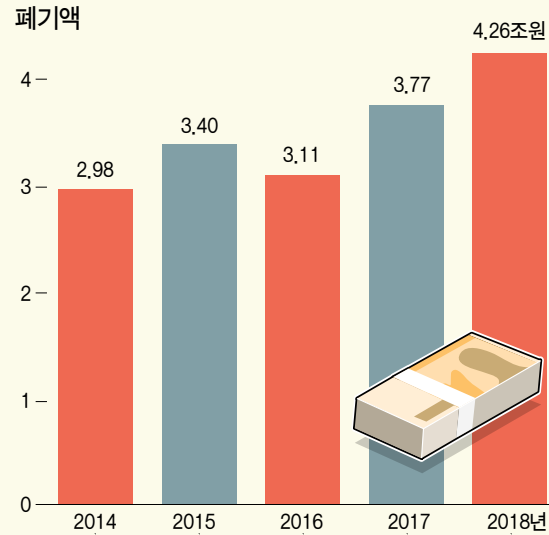


- 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
- ② 미국의 국내총생산 2분기 연속 감소하며 경기침체
- ③ 미국 대중 무역적자 지속할 가능성
- ④ 애플이 세계 최고 가치를 자랑하는 기업으로 남을 확률
- 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예정 대로(3.29) 이루어질 확률
- ⑥ 외계생명체 발견·마라톤의 서브2* 확률

*2시간 이내에 레이스를 마치는 것

자료 / 이코노미스트

손상화폐 폐기 규모



자료 / 한국은행

작년 손상돼 폐기한 돈 4.3조

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불에 타고 찢어져 폐기한 돈은 6억2천700만장으로 1년 전보다 4.1% 늘었다. 금액으로 따지면 4조2천613억원. 전년 대비 13.1% 증가했다. 폐기된 손상 화폐를 새 화폐로 대체하는 데 든 비용만 639억원에 달했다. 지폐는 5억9천만장, 총 4조2천590억원어치가 쓸 수 없어 버려졌다. 폐기된 지폐를 낱장으로 쌓으면 높이가 총 62.5km로 에베레스트산 높이의 7배, 백두산의 23배, 롯데월드타워의 113배에 달한다. 만원권이 3억3천만장으로 폐기된 지폐의 55.4%를 차지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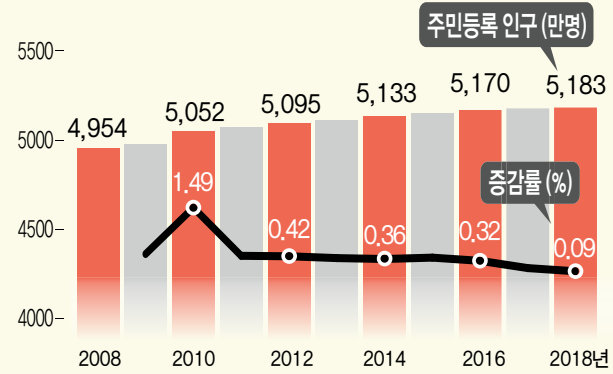
김토일 기자

지난해 인구 0.09% 늘어 증가율 역대 최저

2018년 말 기준 한국 주민등록 인구는 5천182만6천59명으로 집계됐다. 통계 공표 이래 평균연령이 처음으로 42세를 넘어섰고 0~9세 인구는 50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. 총인구는 2017년보다 4만7천515명, 0.09% 늘어 처음으로 인구 증가율이 0.1% 이하를 기록했다. 시·군·구 중 순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화성으로 6만2천609명 늘어났다. 순 유출은 경기 안산에서 1만8천627명으로 가장 많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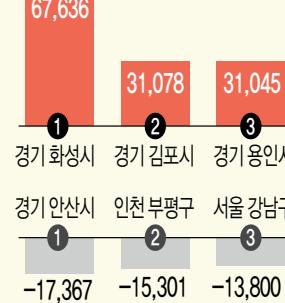
장예진 기자

주민등록 인구 통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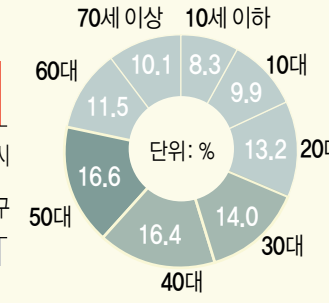


인구 증가상·하위 3개 시·군·구

2018년 기준, 단위: 명



연령별 주민등록 인구



자료 / 행정안전부

중 창어4호, 인류 최초 '달의 뒷면' 착륙 성공

2018년 12월 8일 발사

2018년 12월 30일 착륙 궤도 진입

2018년 12월 12일 달 궤도 진입

'창어(嫦娥) 4호' 1월 3일 달 착륙 성공

라그랑주 점 L2 (중력 안정 지점)

'혜차오(鹊桥·오작교)' 통신 중계 위성으로 달 뒷면과 지구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달 착륙선과 지구 간에 정보 교환 할 수 있도록 도움, 2018년 5월 발사

무인로봇 탐사차(로버) 달 지형관찰, 달 표면의 토양과 광물을 분석, 천문관측, 중성자방사선탐지, 밀폐 공간 내 식물 재배 등 임무

중 창어4호 인류 최초 '달의 뒷면' 착륙 성공

중국이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하는 '창어(嫦娥) 4호'의 임무가 완벽히 성공했다고 선언했다. 중국 국가항천국(CNSA)은 달 뒷면에 착륙한 탐사선의 과학장비들이 잘 작동하고, 탐사선이 찍은 사진과 탐지 데이터가 지상통제시설에 전송되고 있다고 밝혔다. 특히 중계 위성인 '혜차오(鹊桥·오작교)'의 도움을 받아 탐사 로봇 '위투(玉兔·옥토끼) 2호'와 착륙선 창어 4호가 서로 사진을 찍었다. 두 기기 모두에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보였고, 분화구들이 있는 달 뒷면의 적당한 풍경이 배경이었다.

박영석 기자